

# 한형조 무문관 탐방

## 연재를 시작하며

A.D 6세기 갈대잎을 타고 북위의 수도 낙양에 나타난 서역승의 전설로부터 중국 선의 역사는 시작된다. 소림사의 번백과 눈 쌓인 프락의 붉은 선혈을 거쳐 6조에 이르러 선은 새로운 불교운동으로서의 기반과 동력을 얻었다. 그 이후 선의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떴다 사라졌다. 우징송(吳經熊)이 선의 황금시대라 불렀던 창조와 혁신의 수세기를 거치며 불교는 동아시아의 사유와 전통의 일부로 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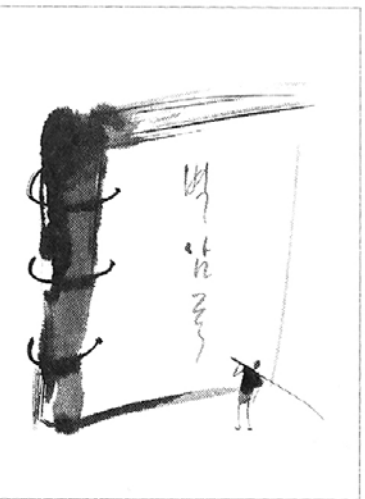
달이 차면 기운다 했던가. 만당에서 오대, 그리고 북송에 들면서 선의 불꽃은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전란과 폐폐의 외중에서 지식인들은 사회적 공간과 실무적 요청에 따라 도교와 불교의 개인주의를 넘어 유교를 재발견하는 르네상스를 기획해 나갔던 것이다. 불교의 중심이었던 선은 그 위기 앞에서 수성(守成)의 자세를 취했다. 그동안 난민히 개화했던 자체의 전통을 정리하고 보존하며 경전화해 나갔던 것이다.

북송 초에 (경덕전통)록(1004)을 필두로, 이어 (공등록)(1036)과 (속등록)(1101)이 지어졌다. (경덕전통)에는 1천7백명의 선장(禪匠)들의 활발발(活潑發)·물고기가 기운뜰게 뛰노는 모양처럼 선가가 흥만한 승려의 모습을 표현한 말한 거레가 계보를 따라 눈부시게 펼쳐져 있다. 사적과 역사로서는 훌륭한 이 집록은 그러나 실지 참구의 도구로서는 너무 방만하지 않

팽팽한 해 미른 하늘을 깨는 한줄기 우레소리 대지의 온갖 생명들이 화들짝 눈을 뜨네 심리단심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리고 수미산이 벌떡 일어나 어깨춤을 추는구나

자유란 바로 이런 것임을 과시하고 있는 절창이다. 일대사를 마친 해개는 1228년 동가(東嘉)의 용상(龍翔)에서 대중들을 위해 선가의 에피소드 48칙을 선정, 평(評)을 달고 송(頌)을 붙여, 이듬해 황제인 이종(理宗)의 4번째 즉위일을 기념하여 바쳤다. 이종은 그의 도력을 흠모하여 법연도 베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통을 구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인 (무문관)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구업(口業)을 맡았다. (무문관)은 (벽암록)에 비해 촌철살인과 광광한 긴장, 활발발한 상상력에 있어 아무래도 좀 처진다. 그렇지만 그것은 산문적 경향이 오히려 일반인이나 재가불자



# “온갖 생명들 화들짝 눈 뜨네”

### 강독에 초점... 상상력 총동원 깨침의 세계 접근

나는 회의가 컴팩트한 선의 매뉴얼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다양한 공간집이 만들어졌다. 가장 유명한 것이 (벽암록)(1136)이다.

벽암록! 선종사의 기원(機緣) 일백칙(一百則)을 위경 원오(圓悟)가 자신의 염경(法華)에 천제시인 설두(雪竇)의 송(頌)을 끌어붙인 이 작품은 과시 선언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탁월한 문학적 향기를 갖고 있는 이 승고한 선의 경전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지적 분석과 해석의 대상으로 떨어져 대대(大慧 1089~1163)는 스승의 이 고심의 작품을 아예 불태워 버렸다. 선문헌에 대한 스콜라적 경향을 비판하고 본래적 방편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이 간화종풍을 진작시켰고, 그 운동의 와중에서 새로운 선서 하나가 편찬된다. (무문관(無門關))이 그것이다.

편지는 무문해개(無門關) 남송(南宋) 순희(淳熙) 10년(1182), 항주 전당에서 태어났다. 여러 스승을 역방(歷訪)하며 가르침을 받다가 마침내 월림사관(月林師範) 선사(禪師)를 만난다. 조주의 무(無)자 화두를 끌어안고 공공대기 6년, 어느날 점심공양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홀연히 통속을 뚫고 나가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읊었다.

들이 선에 접근하는 데는 더욱 친철할 수도 있다. 무문관을 강설(講說)하고 제창(提揚)한 책이 시중에 두엇 나와있다. 그저 불경이 좋아서 뒤적이는 위인애에 연감생심, 강나 제창은 뉘이 아니다. 글자를 풀이하고 문맥을 짚으며 상상력을 함께 나누고 주변을 돌아보는 (강독(講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선을 모르고 문자에 몰입하는 것은 불교 이래의 금기이고, 또 해가 자신 '언구(言語)에 체(滯)하여 해회(解會)를 찾지말라'고 경고했는데 눈먼 문자법사의 망발이 혹 발설(拔舌)이나 식미(備置)의 혐을 짓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 위구심을 금강경이 도닥거려 준다. "이 소식을 안고 전파하는 공덕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하다." 감상을 다하겠지만 문자조차 잘못 짚고 헛던 곳 어찌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격려와 질정 바란다.

**필자소개**

- 서울대 철학과 졸업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 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연구실 조교수
- 현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
- 저서로는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 <주희에서 정약응으로> 등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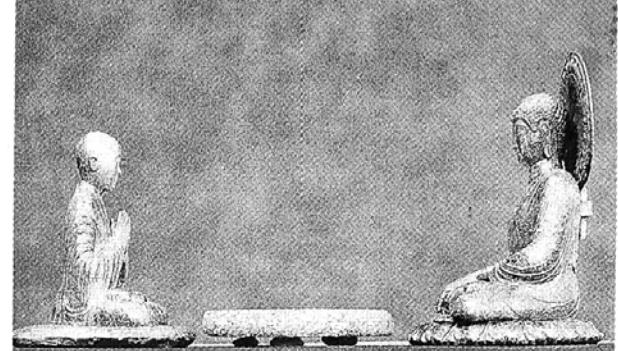
青天白日一聲雷, 大地群生眼豁開  
萬象森羅齊首肯, 須彌踏舞舞三臺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들라면 삼법인(三法印)을 빼놓을 수 없다. 법인(法印)이란 인도어 다르마(法)나 우타나(Dharma-uddhana)를 번역한 것으로 '가르침의 표지' '진리의 요약'이라고 해석되는데 '세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세가지중 첫번째가 지어진 모든 존재가 변한다는 제행무상인(諸行無常)이다. 이세상의 모든 것은 현상계의 연속된 변환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로부터 산하대지와 일월성신에 이르기까지의 물질계는 성·주·괴·공의 반복된 법칙에 따르고 태어난 생명체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정신작용은 생·주·이·멸의 진행을 벗어날 수 없다. 혹자는 무상이란 사람이 죽고 꽃이 시든 현상에만 국한한다. 무상은 바로 유가 무로 변화되는 과정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닌 무가 유로 변화되는 과정도 포함한다. 아기가 부모의 인연으로 태어난 것도 무상이고 젖은 꽃의 씨앗이 다시 싹트는 것도 무상이다.

두번째는 모든 존재에서 실제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가르친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이다. 무아는 인도어 안아트만(Anatman)으로 안(An)이란 '없다(無)' '아니다(非)'라는 뜻이고 아트만(Atman)은 자아·영혼을 의미한다. 현재의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는 '제법무아인'의 가르침을 얻은 이 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진리를 깨치지



◇진철은 작 '차 한잔의 선율'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며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건너 해탈을 이룰 수 있었던 '무아'의 깨달음에는 반야·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붙어서 끄다' '타던 불이 꺼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열반적정인은 불교의 이상적 경지로 일체가 무상이고 무아이며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행을 통하여 일체의 고통이 사라진 자유롭고 안전한 세계에 도달된 것을 말한다. '니르바나'의 의미 속에 있는 '불'은 바로 탐욕·성냄·어리석음의 불을 말한다. 즉 중생의 내면에 타오르던 온갖 번뇌의 불들이 완전히 꺼진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다.

"대열반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수행자에게 답하라 고승 마조는 계속 물을 가르키며 "빠르다 빨라"하곤 말했다. 흐르는 물속에서도 삼법인의 이치를 그대로 가르치신 옛 조사의 해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제 열 (유마선원장)

# 法數로 배우는 불교

<11>

- 제행무상** 지어진 모든존재 변한다
- 제법무아** 고정불변 자아실체 없다
- 열반적정** 번뇌사라진 깨달음 경지

무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처님 '내가 있다는 생각'을 무지라고 보았다. 모든 존재는 온갖 잡다한 못 인연을 빌어서 나타난 것이다. 인간과 삼라만상의 일체 사물도 상호관계와 조건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존재한다. 존재는 인연 법칙일 뿐 실체가 없다.

반·해탈·정토·청정·공이라는 뜻을 다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고정불변의 자아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삼법인의 세번째는 열반적정인(涅槃寂靜)으로 깨달음의 경지는 그윽하고 고요하다는 것이다. 열반은 인도어 니르바나(Nirvana) 납빠나(Nibbana)

# 불교와 수학

4  
'공'과 '0'

김용운

기독교의 <성서> 이슬람교의 <코란>, 유교의 <논어>... 등은 그 교리의 창시자의 언행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이들 책을 읽으면 그 종교 사상, 교리 등에 관한 핵심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는 크게는 스승, 대승의 구별과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팔만사천(八萬四千)의 법문(法門)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불교 철학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들을 분리하여 낱말이 주목하면 때로는 서로 모순이 되는 어구도 있으나 이 많은 경전과 법문은 큰 바다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불교의 큰 바다에서 융합되고 있다.

이 바다 어디서나 다죽일, 일죽다(多即一, 一即多), 연기(緣起), 공(空) 등의 사상이 바다위에 반사되는 햇빛처럼 번뜩이고 있다. 모두는 곁들여져 있지 않으며 서로 깊이 얽혀 있다. 모든 현상은 연기에 의해 일어나기에 본성은 공(空)이며 연기의 결과는 다죽일, 일죽다(多即一, 一即多)로 표현되고 있다.

불교와 수학은 목적부터 다르므로 불교 철학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논리적 구조로 보면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 공사상 수학에 투시 '0' 개념 등장 '없지만 있다'는 철학적 사유 제시

다름과 같다. 다죽일, 일죽다(多即一, 一即多)와 공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다(多)를 2, 즉(即)을 "="로서 표현해 2=1이란 곧 다죽일(多即一)의 방정식이 생긴다. 이식의 양변에서 똑같이 1을 빼면 2-1=1-1, 즉 1=0이다.

1을 존재하는 것의 단위로 하고 다죽일, 일죽다(多即一, 一即多)를 인정하면 존재는 곧 공(空)이다.

수학에서도 1+1=2가 아닌 1+1=1의 논리를 받아들일 때가 있다. 두 개의 불씨를 합할 때, 두 개의 강물이 합쳐질 때, 전기의 흐름이 합쳐질 때 1+1=1이다. 수학에서는 이처럼

물, 전기, 불같은 연속양, 즉 분리할 수 없는 대상은 나눌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속담의 '뭍로 물 배기'의 세계이다.

공(空)은 대승불교의 근본사상이다. 모든 존재의 현상이 연기(緣起)의 결과이므로 실체가 없는 공이 실상이다. 또 역으로 빈 그릇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백지에는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공(空)한 깨달음에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을 용수(龍樹)는 중관론(中觀論)에서 '일체법(一切法)은 무자성공(無自性空)', 즉 자성(自性)없이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공의 사상이 수학에 투시되어 영(零)의 개념이 되었다. 인도에서 맨 처음 영이 발견된 까닭은 이 공의 사상 때문이었음이 수학사의 창설이다.

현대인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0=1, 2+0=2...라는 식으로 0을 배운다. 분명히 0은 수세계의 한 멤버이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수를 발견한 것은 물건의 집합 요소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사과 한 개, 두 개의 돌멩이, 세 마리의 양떼가 있다... 이것을 1, 2, 3...으로 표시했다.

결보기에는 두 개의 돌멩이와 두 마리의 양떼 사이에는 '물', '양'만 보일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하나씩 대응이 성립한다. 이 사실을 인식한 인간은 '2'라는 수를 추상해 냈다. 이와같이 계속해서 인간은 1, 2, 3...을 알아냈다. B·러셀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류문명은 새로운 단계로 비약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0을 추상(抽象)하는 데는 한 많은 지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 2는 두 개의 물건의 집합에 대한 숫자이다. 마찬가지로 0은 아무것도 없었던 물건의 집합에 대한 숫자이다. 이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존재한다' 또는 '없는 것이 있다'라는 언뜻 모순에 가까운 논리적 인식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셈(算)의 문제가 아니라 공을 실제로 인식하는 철학과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곧 불교적 '일체법(一切法)은 무자성공(無自性空)'과 통하는 신념일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살 빼야지, 살 빼야지.”

##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깨달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 ①**

불교 다이어트

###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론 다이어트를

제3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쾌언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도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국판 224쪽 / 학림 지음  
여시아문 / 값 5,000원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08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087(팩스)